

# 근·현대 풍파 피해간 ‘명당’ 절경을 뒀다

경기 문화유산을 찾아서 >75<안성 양성향교·덕봉서원·정무공 오정방고택

조선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인의예지로 대표되는 유교 이념을 백성에게 교화, 전파하고자 공립교육기관인 향교를 ‘1읍 1교(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전국의 모든 군현에 배치하였다. 한편 조선의 정치 운영은 향촌사회에 기반을 둔 여러 봉당(朋黨)에 의해 전개되었는데, 이들 봉당은 서원을 매개로 한 학연과 지연에 기초했다. 이런 까닭에 조선시대 읍치(邑治)가 있던 곳에는 대부분 향교가 지금도 남아 있으며, 명현을 배출한 지역에는 서원이 자리하고 있다. 참고로 향교는 공립기관인 까닭에 지금의 시·군·읍·면 소재지에 주로 위치하며, 서원은 향촌을 기반으로 한 사립기관인 까닭에 비교적 경관이 빼어난 한적한 장소에 자리하고 있다.

향교는 공자를 비롯한 선현의 제사를 지내면서 지방 자제들을 교육하는 곳이고, 서원은 선현을 봉사(奉祀)하고 학문을 추구하는 장소이다. 그리고 이런 목적에 맞게 서원과 향교에는 제향공간인 대성전과 강학공간인 명륜당이 중심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나즈막한 야산의 경사면을 따라 전면의 낮은 곳에 명륜당이, 배후의 높은 곳에 대성전을 배치한 전학후묘(前學後廟)가 기본적인 배치였다.

건축사적으로 볼 때, 명륜당은 정면 5칸 규모의 팔작지붕이 일반적이고, 대성전은 정면 3칸의 맞배지붕이 기본인데 죽은자가 머무는 곳이기엔 정면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을 창호가 없이 벽체로 조성한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향교의 경우 제향공간 내에 서원에는 없는 동무와 서무가 대성전의 좌우에 배치되어 공자의 제사를 비롯한 현인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그리고 향교와 서원에는 어김없이 은행나무가 있는데 공자가 은행나무 밑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속설이 있다.

경기도는 명유현사(名儒賢士)와 고관

## 조선시대 유교이념 전파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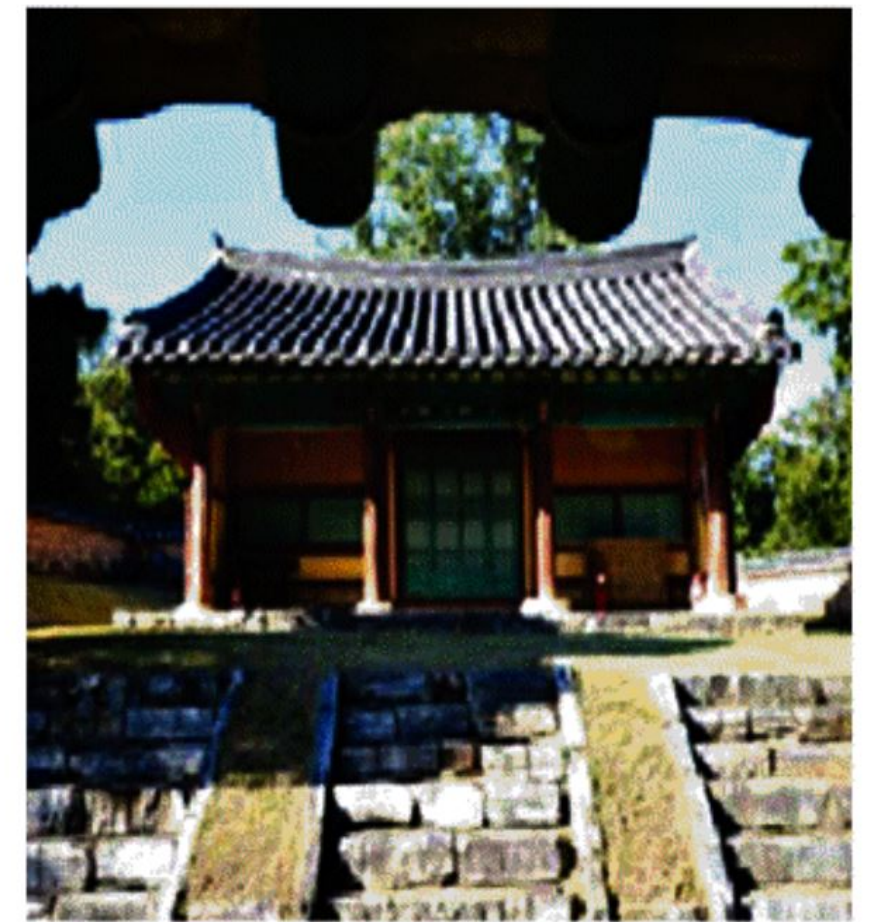
## 도시화 진행 안돼 ‘원형’ 간직

## 한적한 전원 풍경 ‘힐링 답사’

대작이 거주하며 후학을 양성한 조선유학의 중심지였고 그런 이유로 서원과 향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향교와 서원들이 대원군의 서원철폐령과 한국전쟁, 그리고 최근의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제자리를 벗어나 신축되거나, 원형을 벗어나 복원된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실정에서 원위치에 자리하면 서원형을 상대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오늘 소개할 양성향교(陽城鄉校,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8호)와 덕봉서원(德峰書院,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호)이다. 양성향교는 조선시대 양성현(陽城縣)에 설치된 관립기관이고, 덕봉서원은 경기도관찰사와 형조판서 등을 지낸 오두인(吳斗寅, 1624~1689)의 충절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사액



덕봉서원 명륜당(좌)과 양성향교 대성전(우).



/경기문화재단 제공

을 받아 창건된 사립기관이다.

양성향교는 양성현 치소(治所)와 바로 인접한 구릉 위의 완만한 경사지에 남서향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전학후묘의 배치형식을 갖추었다. 다만 중심 건물인 명륜당과 대성전만 갖추었을 뿐, 동재와 서재·동무와 서무와 같은 기본시설은 물론 장서각·고직사·전사청 등의 부속시설도 없는데, 이는 교육기능을 상실한 조선 후기 향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양성향교의 대성전에는 다른 향교에는 없는 벽화가 퇴칸에 그려져 있어 이채롭다. 한편,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시 훼손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 중의 하나인 덕봉서원은 일반적인 서원건축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경내에 일반적인 서원에는 없는 정려각이 있는 점과, ‘양곡집(陽谷集)’ 2권 4책과 1681년 김창협(金昌協)이 그린 오두인의 화상 1점 등을 소장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또 배향인물인 오두인이 성장하고 학문을 닦은 장소인 안성정무공오정방고택(安城貞武公吳定邦古宅,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75호)이 인접해 있는 점도 남다르다. 이 오정방고택은 사랑채와 안채를 한 몸으로 지으면서도 내외를 구별하고 세부 치목 수법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유적이 위치한 양성면 소재지 일대는 경기도 남부에서 드물게도 도시화가 별로 진행되지 않은 곳으로, 전원의 풍경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다. 양성향교가 있는 곳은 한적하여 편안한 기분을 안겨주며, 덕봉서원에서 바라보는 한천(漢川) 유역의 들판은 시원한 전망을 선사한다. 또 정무공오정방고택이 자리한 덕봉마을은 지난 400여년간 문과급제자 20명을 배출시킨 풍수지리적 명당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들 유적은 반경 1.5km 내에 인접해 있어 이동의 부담도 없다.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기 위한 답사코스, 힐링을 위한 여행지로 권해 본다.

